

분양시장 찬바람...주택 청약통장 인기 '옛말'

2022년 이후 신규보다 해지 급증
광주 418건·전남 392건 '역전 현상'
신영대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해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최근 3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 내 주택 청약통장 해지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2020년 123건 ▲2021년 100건 ▲2022년 91건 ▲2023년 90건 ▲2024년 109건 ▲2025년(8월 기준) 6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해지자는 각각 93건, 79건, 102건, 114건, 132건, 70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자 수를 꾸준히 넘어가고 있다.

전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가입 및 해지 건수는 ▲2020년 138건·81건 ▲2021년 105건·77건 ▲2022년 99건·108건 ▲2023년 77건·107건 ▲2024년 95건·115건 ▲2025년 8월 기준 60건·6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이후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에서 해지자가 신규 가입자보다 많아졌고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지 건수는 광주 418건, 전남 392건 등 총 810건에 달했다.

이처럼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과 고금리, 아파트 분양가 상승, 분양 일정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 조성액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 조성액은 ▲2020년 21조2천억원 ▲2021년 23조1천억원 ▲2022년 18조3천억원 ▲2023년 15조원 ▲2024년 14조8천억원 ▲2025년(8월 기준) 10조6천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청약 조성액 규모는 3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도시보증금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리 인상과 분양시장 침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청약통장의 매력이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잔액이 줄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대 의원은 "청약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지만 지금처럼 실



환율 1,430원 웃돌자 외환당국 1년 반 만에 구두개입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에 원/달러 환율이 13일 1,43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풀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뽕조대은행센터./연합뉴스

효성이 떨어지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HUG는 청약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유지자에 대한 세제 혜택, 청약 가점제 개선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호기자

광주은행, 지역사회 온정 나눴다

임직원 자발적 참여 자율 봉사 적극 실천
'씨앗봉사단' 유기묘·어르신 돌봄 활동

광주은행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임직원 자율 봉사조직인 '씨앗봉사단'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날 씨앗봉사단은 두 개 팀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 팀은 '광주 캣맘협의회 유기묘 보호소'를 찾아 고양이 보호시설 청소, 사료 급여, 생활환경 정비 등 유기묘 돌봄 봉사를 실시했다. 다른 팀은 노인복지센터 '광주 평강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 돌봄 지원, 환경 정리, 말벗 활동 등 따뜻한 손길을 나눴다.

'씨앗봉사단'은 JB금융그룹(JB금융지주, 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카페,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봉사조직이다. '이웃의 성장이 우리 사



회 나눔 씨앗이 돼 선순화 되길 응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봉사단원들이 직접 봉사 대상과 활동을 선정하는 자율적 운영 방식으로 봉사의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씨앗봉사단은 그룹 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광주은행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씨앗봉사단 활동을 비롯해 다문화가정·어르신·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금호고속, 광주-안양·광주-안성 신규 노선 운행

각각 15일부터 1일 3회·20일부터 2회

금호고속은 오는 15일부터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경기도 안양시를, 20일부터는 경기도 안양시를 운행하는 노선을 각각 신규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안양 노선은 하루 3회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광주 출발 주중은 오전 7시20분, 오후 1시30분, 오후 7시, 주말에는 오전 6시50분, 오후 1시10분, 오후 6시30분이며 안양 출발 주중은 오전 8시10분, 오후 1시40분, 오후 7시40분, 주말에는 오전 7시40분, 낮 12시50분, 오후 7시40분이다. 소요시

간은 4시간 5분, 수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광주-안성 노선은 하루 2회 운행하며 광주 출발 오전 9시, 오후 3시이고 안성 출발 오전 9시10분, 오후 3시30분. 소요시간은 4시간 5분이며 안성 중앙대를 경유해 운행한다.

요금은 광주-안양 4만1천900원, 광주-안성 3만원이며 '고속버스 티머니'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노선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을 확대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664건 적발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664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모두 거래신고법 위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한국부동산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전남에서 위법 의심 거래 1천567건을 조사해 664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총 326건이 적발된 광주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신고법 위반 169건, 불법 증여 추정 10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5건 등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거래신고법 위반 19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 불법 증여 추정 65건 등 338건이 적발됐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한가위 EVENT

REAL PRO MAN1 최대 250만원 혜택!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

여름철 폭염 운영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질환 예방 기본수칙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